

보덕성(報德城) 반란을 바라보던 ‘시선’들

관련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에 주목하여

윤택양*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고구려 잔적(殘賊)’과 ‘보덕성 백성’:
엇갈리는 두 시선 |
| 2. 두 시간의 교차: 신문왕본기
(神文王本紀) 4년(684) 11월조의
계통과 형성 |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684년 11월 보덕성(報德城)에서 발발한 반란에 대한 정보는 『삼국사기(三國史記)』 내에서 신라본기(新羅本紀) 신문왕(神文王) 4년(684) 11월조와 김영윤열전(金令胤列傳)·윽실열전(逼實列傳)이라는 세 가지 자료에 의해 전해져 왔다. 또한,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 무관(武官) 9서당(九誓幢)조에 보이는, 686년 ‘보덕성 백성’으로 구성, 창설된 부대 적금서당(赤衿誓幢)·벽금서당(碧衿誓幢) 또한 보덕성에서의 반란이라는 사건에 대한 사후 수습책으로서 함께 살펴져 왔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신문왕본기 4년(684) 11월조의 세주(細註)에서 대문(大文)과 실복(悉伏)이라는 인물이 혼동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이 기사에는 금마저(金馬渚)·금마군(金馬郡)이라는 두 종류의 지명이 함께 나타난다. 이를 근거로 이 기사는 본래 나뉘어 있던 두 자료가 하나로 합쳐져 현재의 형태로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그 가운데 한 자료는 대문이 주살당한 것을 본 ‘남은 사람들[餘人]’이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E-mail: woojoomunji@naver.com

반란을 일으켜 이들이 제압당하는 과정에 주목한 것으로 비교적 당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반면 다른 한 자료는 반란의 경과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다루었고 이후 지방 사회의 재편에 주목하였으며 684년 10월의 유성우(流星雨) 기사를 언급하며 도참적 성격을 내비쳤던 자료였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다음으로, 보덕성에서의 반란을 전하는 또 다른 자료들인 김영윤열전·핍실열전에서 공통적으로 ‘고구려 잔적(殘賊)’이라는 표현이 사용됨에 주목하였다. 이는 강력한 적대감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으로, 반란을 진압하는 데 참가하였다가 전사한 두 인물의 주변 인물들이 그들의 공적을 내세우려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9서당(九誓幢) 부대의 편성에 대한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 무관(武官)조의 기사로, 이 기사에서 쓰인 ‘보덕성 백성’이라는 표현은 반란 이후 그들을 ‘백성’으로서 다시 포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686년 ‘고구려 사람’에 대한 ‘경관(京官)’ 수여와 비신라인계 서당의 깃 색[衿色] 사용, 3무당(三武幢) 가운데 두 부대인 적금무당(赤衿武幢)·황금무당(黃衿武幢)의 편성 순서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보덕성에서의 반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쓰인 다양한 표현을 되짚어 봄으로써 인간이 언어를 통해 어떻게 사건을 규정하여 나가는지에 대해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인간이 써 나가는 역사라는 개념을 살핌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를 줄 것이다.

주제어 : 보덕성(報德城), 신문왕본기(神文王本紀), 김영윤열전(金令胤列傳), 핍실열전(逼實列傳), 9서당(九誓幢)

1. 머리말

신라 문무왕(文武王) 10년(670) 6월, 신라는 안승(安勝)을 현재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인 ‘나라 서쪽의 금마저(金馬渚)’에 안치시켰다.¹⁾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안승을 고구려왕(高句麗王)으로 임명하였으며,²⁾ 문무왕 14년(674) 9월에는 그를 ‘보덕왕(報德王)’으로 임명하였다.³⁾ 이로부터 출범하여 신문왕(神

1)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6, 신라본기(新羅本紀) 6, 문무왕(文武王) 10년(670) 6월조, “高句麗水臨城人年[牟]岑大兄, 收合殘民, 自窮牟城至溟江南, 殺唐官人及僧法安等, 向新羅行. ■[至]而[西]海史治島, 見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王處之國西金馬渚.”

2)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10년 7월조, “遣沙飡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文王) 4년(684) 11월 일어난 반란을 계기로 사라졌다는 이른바 ‘보덕국(報德國)’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 않게 제출되어 왔으며, 그러한 흐름 가운데 보덕성(報德城)에서의 반란과 ‘보덕국’의 멸망이라는 사건의 의의에 대하여서도 드물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그런데 보덕성에서의 반란이라는 사건을 살피게 될 때, 가장 먼저 살피게 될직한 신라본기(新羅本紀) 신문왕(神文王) 4년 11월조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면모가 엿보인다. 그것은 기사로 보아 반란을 일으킨 곳은 ‘금마저(金馬渚)’이지만, 반란의 사후 처리로서는 그곳에 ‘금마군(金馬郡)’을 두었다고 한 점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금마군은 경덕왕(景德王, 재위 742~765) 대에 이전 대의 금마저군을 고쳐 새로이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하였으므로⁵⁾ 684년 11월에 두어진 군(郡)의 이름은 금마저군으로 쓰임이 합당하다.⁶⁾ 더욱이 반란의 근원지를 ‘금마저’라 하면서도 그것을 군이 ‘금마저군’이 아닌 ‘금마군’으로 고쳤다고 서술함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이 기사가 각각 다른 어형을 쓴 2종의 자료가 겹쳐 중층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과, 8세기 중반 이후의 시대에 보덕성이 어떠한 이유로 다시금 지역의 역사를 살피는 데 화두가 되었을 가능성을 던져 준다.

- 3)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14년(674) 9월조, “封安勝爲報德王。【十年, 封安勝高句麗王, 今再封。不知報德之言, 若歸命等耶, 或地名耶。】”
- 4) 村上四男, 1978, 「新羅國と報德王安勝の小高句麗國」,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259~261쪽; 金壽泰, 1994, 「統一期 新羅의 高句麗遺民支配」,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編,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 古代篇: 高麗時代篇 -』, 349~351쪽; 梁炳龍, 1997,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 『史叢』 46, 54~55쪽; 임기환, 2003, 「報德國考」, 『강좌 한국고대사 10: 고대사 연구의 변경』,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316~319쪽; 2004, 「고구려 유민의 활동과 보덕국」, 『고구려 정치사연구』, 348~351쪽; 서영교, 2009,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헤성」, 『인문학연구』 78,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정선여, 2010,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 56, 湖西史學會, 93~102쪽; 2013, 「신라 신문왕대 보덕국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湖西史學會; 이미경, 2015, 「新羅 報德國의 지배정책」, 『大丘史學』 120, 大丘史學會, 22~25쪽; 조법중, 2015, 「고구려유민의 백제 金馬渚 배치와 報德國」, 『韓國古代史研究』 78, 韓國古代史學會, 126~132쪽; 정원주, 2019, 「안승(安勝)의 향방(向方)과 고구려 부흥운동」, 『軍史』 110, 71~82쪽;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2023, 「670년대 신라와 당의 대립과 소통 - 薛仁貴·文武王書狀의 분석을 중심으로 -」, 『嶺南學』 85, 107~109쪽; 신은이, 2024a, 「신라 신문왕대의 對唐外交와 一統三韓 표방」, 『新羅文化』 6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53쪽; 권창혁, 2024, 「신라의 報德國 경략과 一統 이념」, 『중원문화연구』 3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81~297쪽 등.
- 5) 『삼국사기』 권 36, 잡지(雜志) 5, 지리(地理) 3, 신라 전주(全州) 금마군(金馬郡), “金馬郡, 李百濟金馬渚郡, 景德王改名.” 권 37, 잡지 6, 지리 4, 백제 완산(完山)조에서도 백제 때의 지명이라고 하여 ‘금마저군(金馬渚郡)’의 이름을 전한다.
- 6) 村上四男, 1978, 앞의 글, 앞의 책, 260쪽의 각주 6).

다음으로 보덕성에서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참전한 김영운(金令胤)과 꺾실(逼實)의 열전에서 그 사건의 전개를 살필 수 있다. 이 두 기록은 물론 보덕성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신라군의 시각을 크게 반영한 것이다. 그런 동시에 본기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나타난, 당대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보전하기 어려운 표현이 열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이상의 자료는 7세기 후반 당시의 숨결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사료이기도 한데, 그런 두 열전에서 보덕성의 반란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공통적으로 쓰인 ‘고구려’라는 단어, 또 그에 덧붙은 ‘잔적(殘賊)’이라는 표현의 글자 하나하나로부터는 전사자의 곁에 머물던 이들이 반란 세력에 대해 느꼈을 격렬한 감정까지도 체감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당시 신라의 일정한 인사들에게 감정을 크게 고양시키는 사건이었던 보덕성에서의 반란에 대한 사후 처리를 살피고자 할 때, 직관지 무관(武官)조에 보이는 이른바 ‘9서당(九誓幢)’ 가운데 684년 11월 보덕성에서의 반란을 전후로 편성된 4개 서당 부대에서 보이는 고구려·‘말갈’·‘보덕성’ 계통의 병력 구분에 대한 기재 사항 또한 하나의 좋은 참고 대상이 된다.⁷⁾ 이들에 대한 지칭어는 앞서 살펴본 열전에서의 태도와 일정한 대조를 이루기도 하는데, 예컨대 김영운이 이끌며 ‘고구려 잔적’을 토벌하였다는 황금서당(黃衿誓幢)은 정작 직관지 무관조에 따르면 ‘고구려 백성’으로 이루어진 부대라고 하는,⁸⁾ 일종의 아이러니까지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특히 흔히 ‘보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용어를 사용하였는지의 문제가 자료를 작성하는 당시의, 또 당사자의 시각을 반영하였음을 보이는 창(窓)이 될 수 있으며, 기록이 현저히 부족한 한국 고대사의 연구 대상으로는 드물게도 서술자의 주관에 대한 문제를 심도 깊게 탐색할 수 있는 단서를 줌을 암시한다. 그것은 『구삼국사(舊三國史)』 이래 기전체(紀傳體) 사서의 버리[紀]를 이루는 자료로서 많은 이들의 눈에 비치며 여러 차례의 수찬(修撰)을 거쳐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삼국사기』 본기와, 특정한 개인을 기리며 그에 대한 역사적 시각을 강하게 반영하는 열전, 또 비교적 무미건조하지만 꽤 이른 시기의 당대적 시각을 암시하고 있는

7) 특히 최근에 ‘보덕성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의의에 주목한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4쪽이 주목된다. 그 밖에도 최희준, 2020,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新羅史學報』 50, 新羅史學會, 96~97쪽의 문제 제기를 참고할 수 있다.

8) 서영교, 2009, 앞의 논문, 239쪽에서 말한, “고구려인이 고구려인을 학살했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아이러니를 잘 내비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직관지 무관조가 각각의 특색을 지닌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세 계통의 자료가 갖는 성격을 각각 정리하고 이를 비교·대조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신문왕 4년 11월조에서 나타난 보덕성 반란 사건에 대한 서술을 특히 앞서 언급한 기사의 층위적 형성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기사 형성 과정에 대한 약간의 추론을 더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참전용사’라고 할 수 있을 두 인물을 기리며 쓰인, 『삼국사기』 펄실열전과 김영윤열전의 ‘고구려 잔적’이라는 표현이 내비추는 관점을 살펴보고, 이를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9서당 가운데 보덕성에서의 반란 직후에 만들어졌다는 벽금서당(碧衿誓幢)·적금서당(赤衿誓幢)의 구성원에 대해 쓰인 ‘보덕성 백성[報德城民]’이라는 표현과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이를 거쳐 4장에서는 맺음말로서 사람의 손에 의해 기술되는 역사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서지학적 양상과 서술 태도의 차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다시금 훑아보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두 시간의 교차: 신문왕본기(神文王本紀) 4년(684) 11월조의 계통과 형성

보덕성에서의 반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삼국사기』는 크게 3군데에 걸쳐 서술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은 신문왕본기의 4년 11월조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펄실열전·김영윤열전이라는 두 신라 측 ‘참전용사’의 기록을 통해 또 다른 시선에서 해당 사건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세 자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인용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기전체 사서의 벼리[紀]가 되는 본기의 기사(A)일 것이다.

- A. ① 겨울 10월, 저녁[昏]부터 새벽[曙]까지 유성(流星)이 곳곳에 떨어졌다.
 ② 11월, 안승(安勝)의 족자(族子) 장군(將軍) 대문(大文)은 금마저(金馬渚)에 있으면서 모반(謀叛)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복주(伏誅)되었다. 남은 사람들[餘人]은 대문이 주살당한 것을 보고 관리를 살해하고 읍(邑)에 근거해 이반하였다[叛]. ③ 왕이 장사(將士)에게 그들을 토벌할 것을 명령하니, 맞서 싸우다

가 당주(幢主) 뽀실(逼實)이 그들에게 죽었다. ㉔ 그 성을 함락 시키고 그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군(州郡)으로 옮겼으며 그 땅을 금마군(金馬郡)으로 삼았다. ㉕ 【대문은 어느 곳에서 는 실복(悉伏)이라고 하였다.】⁹⁾

그런데 이 A의 신문왕 4년 10월~11월조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세주(細註)로 기록된 ㉕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대문(大文)을 달리 실복(悉伏)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일단, 이러한 표현의 선후 관계는 A라는 기사를 구성할 때 사건의 발단을 대문으로 기록한 문헌과 실복으로 기록한 문헌 두 종류를¹⁰⁾ 확인하여, 이를 종합해 그 가운데서도 대문으로 기록한 문헌을 뼈대로 삼고 실복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정보로 삼아 이 기사를 기록하는 서술 방식을 따랐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두 계통의 기사 가운데 어떤 것이 정확할까? 그에 대한 답은 보덕성에서의 반란에 대해 전하는 또 다른 자료인 김영운열전을 살펴보면 명확하다.

B. 김영운(金令胤)은 사량(沙梁) 사람이며 급찬(級漣) 반굴(盤屈)의 자(子)이다. … (중략) … 신문대왕(神文大王) 때 고구려 잔적(殘賊) 실복(悉伏)이 보덕성(報德城)에서 이반하였다[叛]. 왕이 그들을 토벌할 것을 명령하면서 영운을 황금서당(黃衿誓幢) 보 기감(步騎監)으로 삼았다. … (중략) … 실복이 가잠성(假岑城) 남쪽 7리(里)에 나와서 진영을 이루어 기다리는 것을 보고 누 군가 말하였다[告]. … (중략) … 여러 장수들이 그의 말이 옳다고 하여 잠시 물러났다. 오로지 영운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고자 하였다. … (중략) … 마침내 적의 진영에 다다라 그들을 쳐서 싸우다가 죽었다. 왕이 그 일을 듣고서 처연하고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렸다. … (중략) … 작(爵)과 상(賞)을 추증하는 것이 몹시 두터웠다.¹¹⁾

9)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신문왕 4년(684)조, “㉔ 冬十月, 自昏及曙, 流星縱橫.

㉕ 十一月,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㉖ 王命將士討之, 逆鬪幢主逼實死之. ㉗ 陷其城, 徙其人於國南州郡, 以其地爲金馬郡. ㉘ 【大文或云悉伏.】”

10)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分註의 類型的 檢討』,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56쪽 참고.

11) 『삼국사기』 권 47, 열전 7, 김영운(金令胤), “金令胤, 沙梁人, 級漣盤屈之子. … 神文大王時, 高句麗殘賊悉伏, 以報德城叛. 王命討之, 以令胤爲黃衿誓幢步騎監. … 及見悉伏

김영윤열전(B)에서는 대문에 대한 언급 없이 실복의 이름이 보이는데, 그는 전장에 나서 진영을 치기까지 한 명백한 반란의 주체이다. 따라서 그는 사건 초에 “일이 발각되어 복주되었”을 수 없으며, “남은 사람들[餘人]”을 이끈 지도자로서 대문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㉔의 내용을 ㉔에 대입하여 단순히 대문을 실복으로 치환하여 볼 수 없으며,¹²⁾ “대문은 어느 곳에서는 실복이라고 하였다.”고 한 서술은 사실과는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신문왕본기(A)를 편찬한 인물은 김영윤열전(B)을 살펴 그것을 ‘실복’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을까? 그러나 A의 ㉔를 살펴보면, 후술하듯 마찬가지로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며 『삼국사기』에 열전이 있는 꺾실과도 달리 ㉔에는 김영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¹³⁾ 또한 B에서 “실복이 가잠성 남쪽 7리에 나와서 진영을 이루”었다고 하는 등 상세한 전황이 기록되었음에도, A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A의 편집자는 김영윤열전을 확인하지는 못한 듯이 보인다.¹⁴⁾ 그와 같은 추론은 꺾실열전(C)을 더욱 명확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C. 취도(驍徒)는 사랑 사람이며 나마(奈麻) 취복(聚福)의 아들이다. 역사서[史]에서는 그 성(姓)이 실전되었다. 형제가 셋으로 만이는 부과(夫果)요, 둘째는 취도요, 막내는 꺾실(逼實)이었다. … (중략) … 문명(文明) 원년 갑신(甲申)(684) 고구려 잔적이 보덕성에 근거해 이반하였다[叛]. 신문대왕이 장수에게 그들을 토벌하도록 명령하면서 꺾실을 귀당(貴幢) 제감(弟監)으로 삼았다. … (중략) … 진영을 마주하였을 때 홀로 나아가 힘껏 공격하여서 수십 사람을 베어 죽이고서 죽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 (중략) … (형제) 모두에게 사찬(沙飡)의 관(官)(위)을 추증하였다.¹⁵⁾

出椴岑城南七里，結陳以待之，或告曰，… 諸將然其言，暫退。獨令胤不肯之而欲戰。… 遂赴敵陣，格鬪而死。王聞之，悽慟流涕。… 追贈爵賞尤厚。”

12) 李康來, 2007, 『삼국사기』 열전의 자료 계통,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309~310쪽.

13) 전덕재, 2021, 앞의 글, 앞의 책, 441쪽.

14)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찬술자가 중·하대 인물의 열전 또는 그 원전을 신라본기에 보임하지 않았다고 보는 전덕재, 2021, 『신라 인물 열전의 원전과 편찬』,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452쪽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15) 『삼국사기』 권 47, 열전 7, 취도(驍徒) 부록 꺾실(逼實), “驍徒, 沙梁人, 奈麻聚福之子. 史失其姓. 兄弟三人, 長夫果, 仲驍徒, 季逼實. … 文明元年甲申, 高句麗殘賊, 擄報德城

A에서는 꺾실을 ‘당주(幢主)’라고만 한 것과 달리, C에 따르면 꺾실은 출정할 당시 귀당 제감이었다. 신라에서 ‘당(幢)’은 지극히 많은 수의 군호(軍號) 및 군관(軍官)의 명칭에 쓰인 것으로서 고유명사라기보다 일반명사에 가까운 호칭이며,¹⁶⁾ 그 점에서 C에 비해 A는 특정성이 떨어지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더 나아가 B에 보이는 김영윤의 행적은 A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A를 저술할 때 B뿐만 아니라 C 또한 참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한 가정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와 C를 비교하여도, C에서는 시점을 연 단위로 기록한 반면 B에서는 “신문대왕 대”라는 왕대(王代)만 기록하여 일정한 차이가 보인다. 또한 만일 두 자료가 A를 참고했다면, 월(月)까지 수록된 A의 정보를 따라 그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나 어느 쪽도 그러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A·B·C는 각각 독립적인 근거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추론일 것이라고 여겨진다.¹⁸⁾

그렇다면 A의 본문과, 분주 ㉔에서 ‘어느 곳[或]’으로서 그 흔적이 보이는 또 다른 한 계통, 이 두 계통의 문헌의 내용의 출처는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 A라는 기사를 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찾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두 자료의 서술 태도는 꽤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하였듯 ㉔은 대문 대신 실록을 언급하였으며 A를 완성한 편집자는 대문과 실록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A의 ㉔에 따르면 대문은 ㉔에서 보이듯 신문왕이 군대를 보내 토벌하기 이전에 이미 주살되었다. 반면 B에 따르면 실록이 신문왕이 보낸 군대와 대결하였다고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오히려 A에 대응시키자면, B의 실록은 ㉔에서 말하는 “남은 사람들[餘人]”에 해당할 것이다.

결국 A의 기초가 된 두 자료에는 서술 태도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A의 ㉔에서는 ‘대문’과 실록을 포함할 “남은 사람들”을 구별하며 비교적 상세히 당대의 상황을 기술하였으며, 대문의 반란 계획이 발각되어 주살당했다는 내용은 B와 C에서도 알 수 없는 독립적인 정보이다. 반면 ㉔에서 보이는 ‘어느 곳’의 실록에 대한 인식은, 실록에 대해 기록한 또 다른 문헌이 ‘대문’과 “남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기술되어 있었음을¹⁹⁾ 암시

而叛. 神文大王命將討之, 以逼實爲貴幢弟監. … 及對陣, 獨出奮擊, 斬殺數十人而死. 大王聞之, 流涕嘆 … 皆追贈官沙湫.”

16)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309~311쪽.

17) 전덕재, 2021, 앞의 글, 앞의 책, 449~450쪽 참고.

18) 李康來, 2007, 앞의 글, 앞의 책, 310쪽 참고.

19) 李康來, 2007, 앞의 글, 앞의 책, 310쪽.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A를 다시 살펴볼 때, ⑥에서는 ‘금마저(金馬渚)’라고 한 곳을 ④에서는 ‘금마군(金馬郡)’으로 고쳤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④의 ‘금마군’은 8세기 중반 경덕왕 대에 지명을 개정하면서 금마저군(金馬渚郡)을 고친 이름이기 때문이다.²⁰⁾ 그렇다면 ④의 출전은 8세기 중반 이후, 다시 말해 작성 연대가 당대와 떨어져 있는 계통의 출처(이를 문헌 < β >라고 가칭한다)에 근거함을 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⑥의 경우 ‘금마군’의 지명을 쓰지 않았고, 실북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었으나 대문이 주살되고 반란이 일어나기까지의 당대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여 현재까지 유일한 원전으로서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아마도 당대와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저술된 출처(이를 문헌 < α >라고 가칭한다)에 근거하였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다시 A를 살펴보면 ⑥에서 쓰인, ‘남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수 있다. ‘남은 사람들’이란 사람은 결국 ‘남지 않은 사람’, 곧 ‘대문’을 염두에 두고 쓰인 표현일 수밖에 없다. 결국 ⑥ 전반에 걸친 반란의 발생 경위에 대한 서술은 공통적으로 < α >를 구성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금마군’이 등장하는 이유는 반란이 일어난 ‘그 성[其城]’을 당대의 명칭이었던 (금마)군(郡)으로 개편하는 과정을 다루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지역 사회의 재편’에 대한 서술은 ‘남쪽 주군(州郡)’으로의 사민(徙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마군’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④ 전체가 < β >의 구성요소였다고 보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한다. ⑥에서 반란 세력이 근거로 삼은 곳을 ‘읍(邑)’으로 표현하여, ④의 ‘성’과도 표현이 일치하지 않음은 그런 구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와 같이 그 내용을 추적하여 볼 수 있는 < α >·< β >는, 곧 각각을 ⑥에 포함되어 있는 ‘대문’과 그와는 다른 계통의 ‘실북’이라는 인명의 출처로 대응시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본다면 ⑥와 ④에서 보이는 서술의 주안점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대체로 ⑥의 근거가 된 < α >에서 ‘금마저’에서의 반란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으나 후반부의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A의 편찬자는 ④의 근거가 된 < β >에 보이는 금마군의 설치 등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그 후속 대응에 대한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의 관점은 당시 ‘금마저’에서 일어났던 ‘반란의 진압’

20) 『삼국사기』 권 36, 잡지 5, 지리 3, 신라 전주 금마군조; 村上四男, 1978, 앞의 글, 앞의 책, 260쪽의 각주 6).

이라는 시선에 무게를 두었다면, 후자의 관점은 후대의 ‘금마군’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바라본 ‘지역 사회의 재편’이라는 시선을 반영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β>에도 실북이 반란을 일으켜 주살당했다는 내용 자체는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하였어야만 <α>와 <β>를 확인한 A의 편찬자가 ㉔와 같이 대문과 실북을 혼동하였음이 합리적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반란 이전에 주살된 대문과 반란을 이끌어나간 실북을 혼동한 점에서 <β>의 서술에서 반란의 전개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남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β>에는 없고 <α>에만 있었을 공산이 클 것인데, B에서 보이듯 실북이 ‘남은 사람들’을 이끌며 반란 초기 주살당한 대문과 다른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음이 강조되었다면 A의 편찬자가 <β>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뒤 ㉔와 같이 대문과 실북을 혼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β>에서 반란에 대한 기술은 따라서 ‘실북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와 같은 간단한 배경적 서술 정도에 그쳤고 그 뒤 ㉕와 같이 ‘금마군’ 등의 성립 과정이라는 <β>의 주안점으로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다면, ‘귀당 제감’을 ‘당주’로만 썼듯 그 용어가 간략한 경향이 있으나 어느 정도 당시의 전황을 밝히고 있는 ㉔ 또한 <β>가 아닌 <α> 계통의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A는 <α> 대문이 주살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금마저’의 ‘읍(邑)’을 근거로 봉기하여 궤멸 등을 전사시켰다는 기사와 <β> 실북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 성’을 ‘금마군’으로 삼았다는 두 종류의 기사가 결합해 만들어진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금마군’이라는 표기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노산주(魯山州) 소속 지모현(支牟縣) 및 그 이표기인 지마마지(只馬馬知),²¹⁾ 또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 보유(補遺)의 지모밀지(枳慕密地)와²²⁾ 상통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²³⁾ 더 나아가 마한(馬韓) 시대의 건마국(乾馬國)과²⁴⁾ 연결되는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²⁵⁾ 그에 더해 ‘금마저’

21) 『삼국사기』 권 37, 잡지 6,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노산주(魯山州) 지모현(支牟縣), “支牟縣, 李只馬馬知.”

22)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 보유(補遺) 2, “百濟武廣王遷都枳慕密地, 新營精舍, …”

23) 都守熙, 1974, 「『金馬渚』에 대하여」, 『百濟學報』 5, 百濟學會, 66~67쪽 참고.

24)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권 30, 동이(東夷) 한(韓), “馬韓 … 有…乾馬國…”

25) 申采浩, 「朝鮮史 (20)」, 『조선일보(朝鮮日報)』 1931년 7월 4일 4면; 鄭寅普, 1983, 『薈院 鄭寅普全集 3 朝鮮史研究 上』, 延世大學校 出版部, 112쪽(원서 1946, 서울신문사); 李丙燾, 1976, 「三韓의 諸小國問題」,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66쪽; 都守熙, 1974,

또한 ‘금마의 물가[渚]’라는 어의로 이해될 수 있으며,²⁶⁾ 그렇다면 ‘금마-저’는 ‘금마’의 파생으로서 ‘금마군’이라는 표기가 반드시 8세기 중엽 이후의 것만은 아닐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추론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다음과 같은 또 다른 2개의 기사가 더 보임에 주목할 수 있다.

D-1. 대관사(大官寺)의 우물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의 땅에 피가 흘렀으니 너비가 5보(步)나 되었다.²⁷⁾

D-2. 금마군 미륵사(彌勒寺)에 지진이 있었다.²⁸⁾

D-1은 661년, D-2는 719년을 기년으로 하는 기사이다. 모두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의 기록이고, 그러면서도 경덕왕 대에 금마저군이 금마군으로 고쳐졌다는 사실과는 맞지 않다.²⁹⁾ 이에 대해 경덕왕 대에 금마저군을 금마군으로 고쳤다는 기사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신문왕 대에 이미 금마저가 금마군으로 고쳐졌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지만,³⁰⁾ 그렇다면 신라 내에서 금마저라는 호칭은 670년 이후 684년까지 약 14년에 불과한 시간 동안만 쓰인 것이 되어 신라의 조직 체계 내에서 일정한 관성을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백제 이후 시대의 것으로 비정되는 ‘금마저성(金馬渚城)’명(銘) 기와 등이 빈출하는³¹⁾ 등의 현상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때 D-1에서 ‘금마군’이 나타나는 것은 기이하다. 670년 신라와 고구려 유민 세력이 이곳으로 쫓겨나기 이전, 이 지역은 앞서 언급하였듯 현지에서 이미 쓰이던 ‘지마마지’라는 지명에서 기원한 웅진도독부의 지모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661년 ‘금마군’에서 D-1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함은

앞의 논문, 60~61쪽 등.

26) 都守熙, 1974, 앞의 논문, 61~65쪽 참고.

27) 『삼국사기』 권 5, 신라본기 5, 태종 무열왕 8년(661) 6월조, “大官寺井水爲血, 金馬郡地流血廣五步.”

28)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성덕왕 18년(719) 9월조, “震金馬郡彌勒寺.”

29) 村上四男, 1978, 앞의 글, 앞의 책, 260쪽의 각주 6).

30) 都守熙, 1974, 앞의 논문, 59쪽; 1999, 「한국 고지명 개정사에 대하여」, 『한국지명연구』, 이회문화사, 149쪽.

31) ‘금마저성(金馬渚城)’ 명문와는 익산 대관사지·제석사지·미륵사지·금마저토성·미륵산성에서 발견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유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전용호, 2024, 「유물로 본 전주와 익산 후백제 유적의 성격 : 전주와 익산 지역 출토 통일신라시대 말~고려시대 초 와당과 명문와를 중심으로」, 『전북학연구』 13, 250쪽.

신문왕 대에 금마저를 금마군으로 고쳤다고 보아도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시대착오이다. 그곳은 그 시점에 군(郡)도 아니었고 ‘금마’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A의 ㉔가 갖는 특징과도 상통하며, 마찬가지로 8세기 중반 이후 과거를 회고하되 그 당시의 언어로 쓰인 기록으로 봄이 합리적이다.³²⁾

그럼에도 이와 같이 지명 개정 이전에 ‘금마군’의 존재를 기록한 자료가 복수 나타남은, ‘금마군’의 역사에 대한, 8세기 중엽 이후 작성된 어떠한 자료가 일군(一群)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것이 『삼국사기』 또는 그 원전 자료를 편찬할 때에 참고의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그러한 후대적 기록으로서도 661년 이전의 ‘금마’는 보이지 않고 661년 이후야 ‘금마’가 언급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건마’·‘지모’·‘지마’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며 일대의 지명을 이루던 하나의 형태소가 ‘금마’로 정리된 것은 ‘금마저’라는 전체 지명의 표기가 굳게 된 때로부터 그리 먼 시점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인근 지명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일대의 지명을 “본래 백제의 금마저군이였다[金馬郡, 李百濟金馬渚郡]”고 파악하였듯, 이미 ‘금마저’의 원형이 되는 형태로 굳어 있었던 듯하다. 이 점은 당에서 그곳의 이름을 간추리기 전의 이름이 ‘지마마지’였음에서 추론할 수 있으며, 그것은 『관세음응험기』의 ‘지모밀지’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곧 당시의 지역 주민들에게 ‘지마-마지’(‘지모-밀지’) 형의 2개 형태소 결합형의 지명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며, 그 ‘질서’가 파괴됨은 당이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외부 지배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반면 당을 밀어내고 이곳에 진입한 신라에서는 ‘지마’ 또는 ‘지모’에 대응되는 형태소에 ‘저(渚)’에 상응하는 ‘마지’/‘밀지’가 결합한 2개 형태소 결합형의 어형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표기에 대해서는 이전의 ‘지(支)’·‘지(只)’ 표기에 비해 새로운 것이었던 ‘금(金)’ 표기를 이용하여 ‘금마-저’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삼국사기』 문무왕 10년(670) 6월조에서 보이는 ‘나라의 서쪽 금마저[國西金馬渚]’라는 표현은 이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된다. 여기서는 군(郡)의 표기가 보이지 않아 신라 아래에서 행정 조직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음이 엿보인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도 오히려 당의 웅진도독부가 ‘지마-마지’/‘지모-밀지’라는 두 형태소의 결합을 파괴하여 ‘지모현’으로 쓴 지명을, 그 경향을 역행시켜 ‘금마-

32) D-1의 시대착오적 성격에 대한 지적 및 그에 따라 이를 후대에 삽입된 문구로 보는 견해는 신은이, 2024, 『新羅의 大官寺 조영과 그 목적』, 『대구사학』 154, 대구사학회, 18~19쪽에서도 제출된 바 있다.

저’의 결합형 어형으로 다시금 고친 것이다. 이는 결국 백제 이래 2개 형태소가 결합한 어형으로 지역을 지칭하던 언어적 질서가 갖던 강한 관성을 엿보게 하는 동시에, ‘지마’·‘지모’와 대비되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표기가 주도적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드러내어 준다. 그것이 나중에 경덕왕에 의해 ‘금마군’이라는 간추려진 형태로 다시금 정리되면서야, ‘금마’가 지명에 쓰인 동시에 지명이 간추려진 ‘금마군’이라는 형태로 변모하였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8세기 중반 이후 ‘금마군’의 과거를 회고하는 복수의 기사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할 때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D-1·2는 모두 재이(災異) 기사라는 점이다. 곧 D-1은 대관사 및 금마군의 이변을 다루고 있고,³³⁾ D-2는 미륵사에 일어난 지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변의 발생이라는 요소는 A의 보덕성 반란 직전에 보이는 기사, “저녁[昏]부터 새벽[曙]까지 유성(流星)이 곳곳에 떨어졌다”고 하는 ㉑가 갖는 성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㉑를 이후의 보덕성에서의 반란을 예지하였다고 설정된, 도참적 목적에서 부각된 기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와 같이 본다면 경덕왕 대의 지명 개정 이후에 작성되어 ‘금마군’에서 일어난 과거의 이변을 부각시키며 복수의 사례를 선별, 정리한 일종의 문건이 존재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실록 등의 반란으로 인한 보덕성의 ‘금마군’으로의 재편을 다루는 등, 지역 사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었던 문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반란의 경과보다는 특히 반란 이후 그 지역이 금마군으로 재편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으로’ 경덕왕 대 이전에 ‘금마군’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그러한 일종의, 지지(地誌)의 형식을 갖추었으면서도 도참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기록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록이, 앞서 언급한 <β>의 출처였을 것이다.

결국 『삼국사기』 신문왕본기 4년의 보덕성 반란 기사의 성격을, 다음의 특징을 지닌 두 기사 <α>·<β>의 결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재에는 A의 ㉑와 ㉒를 이루는 반란의 전황에 대한 기사 <α>가 있었다. 이 기사는 보덕성이 자리했던 위치를 ‘금마저’로 지칭하였으며, 대문의 모반을 기록하였고 뒤이은 대문과 대비되는 ‘남은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반란의 전개에 대해 오히려 B와 C 등의 다른 기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문이 모반하여 사망하고 ‘남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꽤 상

33) 이러한 이변은 태종 무열왕의 죽음을 앞두고 나타난 일로 왕의 죽음을 암시 또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법중, 2015, 앞의 논문, 101~106쪽 참고.

세히 실었으나 반란의 진행 상황을 묘사하는 데 대해서는 B와 C에 비해서는 세밀함이 떨어졌으며, 실복의 명의를 실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반면 또 하나의 기사 < β >는 현재의 ㉔를 이루고 ㉔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며 그 안에 실복의 명의를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 β >는 반란 발생 당대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금마군’이라는 지명을 썼음을 고려할 때 8세기 중엽 이후에 작성된 문건의 일부로 보이고, 그 기록의 내용만으로는 대문과 실복이 다른 인물임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반란의 전개에 대한 내용은 소략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마군’이라는 지명이 시대착오적으로 등장하는 다른 사례들을 생각할 때, ㉔가 도참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으로서 < β >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A에서 ‘금마저’와 ‘금마군’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은 이처럼 그 기사가 반란의 발생에 대해 각각 대문과 실복이라는 이름을 들며 설명하였던 두 종류의 문헌 < α >·< β >가 결합해 만들어진 기사이기 때문이라고 볼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 ‘금마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문헌 < β >는 8세기 중엽 경덕왕 대 이후에 작성된 문건으로 판단된다. 두 자료에는 담겨 있는 내용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바라보며 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대상 또한 꽤나 달랐다. 그것은 인간의 주관을 담아 쓰이는 ‘역사’의 특성으로부터 기원한, 다른 시대의 다른 시각을 담은 문헌으로서의 성격 차이일 것이다.

3. ‘고구려 잔적(殘賊)’과 ‘보덕성 백성’: 엇갈리는 두 시선

그러한 역사적 서술에서의 ‘주관’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앞서 살펴본 김영윤열전(B)과 꺾실열전(C)의 내용에서도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구가 있다. 그것은 B와 C에서 밑줄로 표시한, ‘고구려 잔적(殘賊)’이라는 표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B에서는 시점을 ‘신문대왕 때’라고만 한 반면 C에서는 ‘문명(文明) 원년 갑신(甲申)’이라고 하여 그 내용이 더 상세하므로, B가 C를 참고하였으면서도 구태여 정확성을 더아가며 그러한 표현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실복이 ‘가잠성 남쪽 7리’에 진영을 갖추고 여러 장수들이 작전 회의를 벌이는 등 김영윤열전에 상세한 당시의 전황은 꺾실열전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C가 B에 기초하여 쓰였다고 보는

데도 무리가 있다. 앞서 논한 것과 같이, B와 C는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 자료로 봄이 적절한 추론일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자료에서 그 상대인 보덕성의 반란 세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고구려 잔적’이라고 한 것이다. ‘신문대왕’이라는 시호를 사용하여 692년 7월 이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B의 특징 정도를 제외하고는³⁴⁾ 당대의 생동감을 여실히 전하는³⁵⁾ 열전 자료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³⁶⁾ 이와 같은 ‘고구려 잔적’이라는 표현은 당대에 여러 사람들의 사이에 회자되던 표현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보덕성 반란 세력에 맞서는 전역에 참여한 ‘참전용사’의 전기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듯, 이 표현은 보덕성 반란 세력에게 ‘고구려’라는 명백한 국적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적(賊)’이라는 표현에서는 명백한 적대감을 느낄 수 있다. ‘잔(殘)’이라는 한자는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 ‘잔(殘)’의 한 뜻으로 ‘잔결(殘缺)’을 언급하여³⁷⁾ ‘불완전함, 빠짐’이라는 의미를 지녔듯 망국 이후 많은 세월의 풍파를 뒤집어쓴 고구려 유민 세력의 ‘불완전성’, ‘결여’를 지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³⁸⁾ 이러한 ‘불완전성’과 ‘결여’에 대한 인식은 적대감과 결합했을 때 비하적 의미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에서 쓰인 ‘백잔(百殘)’이라는 표현이³⁹⁾ 내포한 의미를 고려할 때 느끼기 어렵지

34) 김영윤열전의 원전을 8세기 전반에 활동한 인물인 김대문(金大問)의 『화랑세기(花郎世記)』로 보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전덕재, 2021, 『신라 인물 열전의 원전과 편찬』, 앞의 책, 441~443쪽.

35) 예컨대 B의 ‘가잠성(假岑城) 남쪽 7리’와 같이 전투 지점에 대해 1리(里) 단위로 거리를 명시한 기록은 『삼국사기』 내에서 유례가 드물다. 때문에 이 기사는 현대의 연구에서도 가잠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이용되어 왔는데, 예컨대 최근의 연구에서 이 기록을 근거로 ‘가잠성 남쪽 반경 2.9~3.8km 내 진을 칠 장소(개활지)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지리적 요건을 맞춤으로써 가잠성의 위치를 비정하려 한 연구가 제출되었음은 그러한 사료가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정덕기, 2023, 『신라 진평왕대 假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北岳史學會, 164~173쪽 참고. 결국 이는 당대의 전황을 상세히 실은 기록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봄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36) 김영윤과 꺾실을 포함한 『삼국사기』 열전 7 수록 인물들의 무용담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사관에 의해 상당한 윤색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삼국사기』 열전 7에 7세기 신라인들의 의식세계가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본 강종훈, 2011, 『『삼국사기』 열전 7의 순국 인물 분석』, 『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223~229쪽을 참고할 수 있다.

37) 『강희자전(康熙字典)』 진집(辰集) 하, 알(歹)부, 잔(殘), “又殘缺也.”

38)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4쪽 참고.

않을 것이다. 특히 ‘보덕’이라는 이름은 『논어(論語)』에서 “덕(德)으로서 원한을 갚는 것은 어떠합니까?”라는 물음에 공자(孔子)가 “어째서 덕(德)으로서 갚는가? 바름[直]으로서 원한을 갓고, 덕(德)으로서 덕(德)을 갚으라[以德報德].”라고 하여,⁴⁰⁾ ‘원한’을 갚는 관계를 대신해 ‘덕(德)으로서 덕(德)을 갚’는다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여겨진다.⁴¹⁾ 그런데 이 ‘고구려 잔적’이라는 표현은, 곧바로 그들이 “보덕성에 근거해 이반하였다[據報德城而叛]”, “보덕성에서 이반하였다[以報德城叛]”는 문구로 이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덕’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한, ‘배덕한’ 존재임을 보이는 대비 효과를 준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고구려 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의 보덕성 반란에 대한 시선은 어떠했을까. 두 말할 것 없이 그것은 전장에서 그들을 실제로 적으로 마주하던 당시의 숨결이 담긴 것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특히 열전의 주인공은 김영윤과 꺾실은 모두 그 전장에서 전사한 인물이므로, 이들의 전기는 아마도 김영윤 스스로가 일찍이 ‘종족과 벗들[宗族·朋友]’로 언급한,⁴²⁾ 가족이나 친척, 또는 전우를 잃은 이들의 구술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본다면 두 인물의 열전을 이루게 된 기초 자료에서 보덕성 반란 세력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적대적으로 기술함은 기실 이상할 것은 없는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 ‘작(爵)과 상(賞)’, ‘사찬의 관(官)(위)’로 명기되었듯, 그들이 그러한 서술을 남기는 목적에는 ‘대왕’으로부터 전사자에 대한 사후의 우대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전공을 내세우는 동시에 그들의 행동이 갖는 정당성과 용맹함을 제시해야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런 표현의 등장한 맥락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반란 이후의 수습에 나서야 했던 국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적대감을 고수하는 것은 기실 환영하기만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헤아려진다.

3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4,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 고구려·백제·낙랑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7~16쪽의 판독을 따르면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에서 ‘백잔(百殘)’은 현재 4회 확인되며, ‘잔국(殘國)’(1회)·‘잔주(殘主)’(2회) 등의 표현 또한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물론 백제에 대한 비하 표현임이 명백하다.

40) 『논어(論語)』 「헌문(憲問)」 제 14, “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41) 조법종, 2015, 앞의 논문, 113~114쪽.

42) 『삼국사기』 권 47, 열전 7, 김영윤, “將行, 謂人曰, ‘吾此行也, 不使宗族·朋友, 聞其惡聲.’”

E. 셋째는 백금서당(白衿誓幢)이라고 한다. 문무왕(文武王) 12년 백제 백성으로 당(幢)을 만들었다. 깃 색[衿色]은 백색·청색[白靑]이다. 넷째는 비금서당(緋衿誓幢)이라고 한다. 문무왕 12년 처음 장창당(長槍幢)을 두었다. 효소왕(孝昭王) 2년(693), 비금서당으로 고쳤다. 다섯째는 황금서당(黃衿誓幢)이라고 한다. 신문왕 3년 고구려 백성으로 당(幢)을 만들었다. 깃 색은 황색·적색[黃赤]이다. 여섯째는 흑금서당(黑衿誓幢)이다. 신문왕 3년 말 갈국(靺鞨國) 백성으로 당(幢)을 만들었다. 깃 색은 흑색·적색[黑赤]이다. 일곱째는 벽금서당(碧衿誓幢)이라고 한다. 신문왕 6년 보덕성(報德城) 백성으로 당(幢)을 만들었다. 깃 색은 벽색·황색[碧黃]이다. 여덟째는 적금서당(赤衿誓幢)이라고 한다. 신문왕 6년 보덕성 백성으로 당(幢)을 만들었다. 깃 색은 적색·흑색[赤黑]이다. 아홉째는 청금서당(靑衿誓幢)이라고 한다. 신문왕 7년 백제의 잔민(殘民)으로 당(幢)을 만들었다. 깃 색은 청색·백색[靑白]이다.⁴³⁾

이러한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 9서당조에서, 특히 효소왕 2년(693) 장창당이 비금서당으로 고쳐졌음을 말하는 기사는 기사의 원전을 논할 때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 왔다. 곧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서두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23군호(軍號)에 대한 명시적인 기년 가운데 역사 속에 가장 늦게 등장한 것이 비금서당이 693년 두어진 일이므로 이 자료는 693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동시에 경덕왕 대 두어진 웅천주정(熊川州停) 장군(將軍)이⁴⁴⁾ 장군의 수효를 헤아리는 데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23군호 기사는 중대 초의 군제 개혁을 반영하여 693년 이후부터 경덕왕 대 이전의 실태를 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⁴⁵⁾

43)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 3 무관, 9서당조, “三曰白衿誓幢. 文武王十二年, 以百濟民爲幢. 衿色白靑. 四曰緋衿誓幢. 文武王十二年, 始置長槍幢. 孝昭王二年, 改爲緋衿誓幢. 五曰黃衿誓幢. 神文王三年, 以高句麗民爲幢. 衿色黃赤. 六曰黑衿誓幢. 神文王三年, 以靺鞨國民爲幢. 衿色黑赤. 七曰碧衿誓幢. 神文王六年, 以報德城民爲幢. 衿色碧黃. 八曰赤衿誓幢. 神文王六年, 又以報德城民爲幢. 衿色赤黑. 九曰靑衿誓幢. 神文王七年, 以百濟殘民爲幢. 衿色靑白.”

44) 『삼국사기』 권40, 잡지 9, 직관 3, 무관 제군관(諸軍官) 장군(將軍),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

45)李文基, 1997, 『『三國史記』職官志 武官條의 內容과 性格』,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46~57쪽 참고.

그런데 비금서당에 대한 기록은 9서당 중에서 유일하게 깃 색[衿色]에 대한 기사가 누락되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⁴⁶⁾ 그와 같이 유독 비금서당에 대한 정보에 불완전한 면모가 엿보임을 고려하면, ‘9서당’에 대한 기사는 693년 이전에 작성된 ‘8서당’에 대한 기사를 기초로 비금서당에 대한 기사를 부기하여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비금서당을 제외하고 특히 683~68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5개 서당이 창설되었던 서당 부대에 대한 다른 기사들은 깃 색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기사로서 693년에 두어진 부대에 대한 정보로서 ‘불완전한’ 비금서당에 대한 정보가 부기되기 이전의 기술을 온존하고 있는, 당대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에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서당 부대들 가운데 686년 두어진 벽금서당·적금서당은 일찍이 보덕성 반란 사건의 사후 처리를 위해 두어진 부대로 언급되었다.⁴⁷⁾ 또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683년 두어진 황금서당⁴⁸⁾·흑금서당⁴⁹⁾ 또한 ‘보덕국’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부대로서 편성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시 말해 신라 조정에서는 비군사적으로 ‘보덕국’을 해체하기 위하여 안승(安勝)을 중앙으로 불러들이고 황금서당·흑금서당을 신라군 군단으로 편성하는 등 ‘보덕국’을 자국의 질서 내에 편성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시도가 오히려 고구려 유민들의 민심을 동요케 하였고 결국 반란으로서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⁵⁰⁾

근래 683년 편성된 부대에 대해서는 ‘고구려 백성’·‘말갈국 백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 반면, 686년 편성된 부대에 대해서는 ‘보덕성 백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 점에 천착한 연구가 제출되었음은⁵¹⁾ 충분히 의미 있으며 또 주목하여야 할 지점으로 여겨진다. 곧 신라 조정은 683년 창설된 부대에 대해서는, 특히 ‘말갈’로 표현된 예인(濊人)들이⁵²⁾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었다고 하기는 어려움에도 그들에게 ‘국(國)’이라는 표현을 덧입히기까지 하면서 역사적인 연고를 강조하였다.⁵³⁾ 반면 686년 창설된 두 부대에 대해서는 당대의 신라사와 함께 하던 ‘보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46) 末松保和, 1954, 앞의 글, 앞의 책, 354쪽.

47) 村上四男, 1978, 앞의 글, 앞의 책, 261쪽.

48) 정선여, 2010, 앞의 논문, 94~96쪽; 2013, 앞의 논문, 56~59쪽 참고.

49) 박명호, 2016, 『진골귀족의 관료화와 보수체계 정비』, 『7세기 신라 정치사의 이해』, 경인문화사, 154쪽의 각주 70).

50) 村上四男, 1978, 앞의 글, 앞의 책, 259~260쪽 참고.

51)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4쪽.

52) 정약용(丁若鏞),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권 2, 『말갈고(靺鞨考)』 등 참고.

53) 盧重國, 1999, 『신라 통일기 九誓幢의 성립과 그 성격』, 『韓國史論』 41·4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5쪽 참고.

그러한 표현의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가장 먼저 직관적인 인상을 통해 보기에, 그것은 일찍이 신라 체제에 동참하였던 ‘고구려 백성’과 대비시키는 표현으로서 그들의 저항적 면모를 비추기 위한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⁵⁴⁾ 다시 말해 ‘보덕성’이라는 표현을 반란을 일으킨 자리에 남아 있던 이들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밖에 반란의 의미를 축소하여 신라 국토 내의 반란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신라의 입장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⁵⁵⁾ 이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기하였듯 ‘덕(德)으로서 덕(德)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주어졌던 ‘보덕(報德)’의 이름을 686년 되살린 데에는 어휘의 배타적 성격만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보덕성의 반란을 잊히게 하고 그들의 구심점을 흐트린다는 의미에서라면, A의 ㉔에서 쓰인 표현처럼 ‘그곳 사람들’을 타지에 분산시킨 채로 다시금 서당 부대, 그것도 표현상으로 백제 유민 전체에 상응하는 규모에 대응시켜 볼 수 있는⁵⁶⁾ 2개 서당 부대의 깃대 아래 모이지 않도록 함이 오히려 더 합당한 조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여기서 다시금 보덕성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참여한 꺾실과 김영윤의 열전기초 자료를 작성한 인물들이 ‘고구려 잔적’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시켰음에 눈을 돌리게 된다. 곧 보덕성의 반란이라는 폭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서, ‘고구려’는 이제 마지막 소수자로서의 방벽이 사라진 자리에 선 고구려 유민들에게 전통적인 신라인들과 국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들을 가르는 ‘구별’의 언어로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구별’의 언어는, 어느 시대에나 그러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균열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B에서 보이듯 ‘고구려 백성’으로 이루어졌다는 황금 서당을 이끌던 김영윤의 열전에서 상대를 ‘고구려 잔적’으로 지칭하고 있음은, 그러한 ‘구별’의 표현이 때때로 갖는 자기모순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 9서당조에서는, 686년이 되자 그런 ‘고구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피하였다. 곧 683년까지 창설된 부대에 대해서는 앞

54) 683년 10월 무렵 신라의 소환에 응하였던 안승 등의 고구려인들은 ‘고구려민’으로 지칭되었다고 보는 반면, 신라 조정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금마저에 잔류하였던 ‘보덕성민’으로 지칭되었다고 하여 둘을 나누어 보는 견해가 있다.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1~293쪽.

55) 정원주, 2019, 앞의 논문, 77쪽;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4쪽.

56) 9서당 가운데 백제인을 대상으로 편성된 부대가 2개인 데 대해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을 소수의 ‘보덕국’인을 대상으로 2개 부대를 편성한 점에서 ‘보덕국’에 대한 대우를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盧重國, 1988, 앞의 논문, 147~148쪽; 임기환, 2004, 앞의 글, 앞의 책, 349쪽.

서 언급한 역사성의 부여가 뚜렷한 반면, 686년에 창설된 ‘보덕성 백성’으로 이루어진 두 부대에 대해서는 고구려와 말갈의 명의를 쓰이지 않았다. 김영운과 꺾실 두 인물의 열전에서 당시 ‘고구려 잔적’이라는 표현이 배제를 위한 문구로 쓰이고 있었던 정황이 내비침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반란의 책임을 따지고자 하며 격렬해진 일각의 논의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고구려’의 명예에 대해 일종의 ‘먹칠을 걷어내는’ 일로서 볼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음이 주목된다. 686년 ‘고구려 사람’에 대해 경관(京官)이 수여된 것이다.⁵⁷⁾ 이때 주어진 관위의 상한은 일길찬(一吉飡, 17위 중 7위)으로 백제인 관위의 상한인 대나마(大奈麻, 10위)보다 3등급이 높고, 하한선은 백제 유민에 대해서는 7품 장덕(將德)에까지 그 대상이 한정된 반면 고구려 사람에 대해서는 최하위 관등인 자위(自位)까지 관위 수여의 대상이 되었다.⁵⁸⁾ 이를 고구려 유민에 비해 백제 유민이 차별적 대우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⁵⁹⁾ 673년의 일로 선행하는 백제 유민에 대한 관위 수여를 686년의 고구려 유민에 대한 관위 수여와 비교하여 백제 유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읽어내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고 본 견해도 제출되어 있다.⁶⁰⁾ 이는 의미 있는 지적이지만, 반대로 말해 후행하는 686년의 시점에서 ‘고구려 사람’이 후대를 받은 것까지는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674년에 외위(外位)가 폐지되었다고 여겨짐에도,⁶¹⁾ ‘고구려 사람’에게 ‘경관(京官)’을 주었다고 표현하였음은 673년의 전례를 따와 규정을 마련하되 그보다 더 후한 대우를 하여 주었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황금서당의 지휘관인 김영운을 기억하던 이들은 그들의 적이 ‘고구려 잔적’임을 부각시키고 있었으나, 이때에 신라 조정에서는 다시 ‘고구려 사람’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다. 그것은 ‘신라에 협조하였던 고구려 사람’을 내세워 국가 체제의 내부에 존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고구려 사람’을 다

57)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 3, 외관(外官) 고구려인위(高句麗人位), “高句麗人位. 神文王六年(686), 以高句麗人授京官, 量李国官品授之. 一吉飡, 李主簿. … 烏知, 李自位.”

58)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 3, 외관 백제인위(百濟人位), “百濟人位. 文武王十三年(673), 以百濟來人, 授内外官, 其位次視在李国官銜. 京官大奈麻, 李達率. … 一尺, 李將德.”

59) 盧重國, 1988,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 - 《三國史記》 職官志·祭祀志·地理志의 百濟關係記事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 韓國古代史研究會, 146~147쪽.

60) 최희준, 2020, 앞의 논문, 95~96쪽.

61) 『삼국사기』 권40, 잡지 9, 직관 3, 외관 외위(外位), “外位. 文武王十四年, 以六徒眞骨, 出居[於]五京·九州, 別稱官名, 其位視京位.”; 李基東, 『사회구조』, 2003,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7: 고대의 정치와 사회 III-신라·가야』, 271쪽 참고.

시금 되새기려 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⁶²⁾ 그러면서도 그러한 조치가 있었던 해는 ‘보덕성 백성’을 서당 부대로 편성하였던 해였다. 그 해에 두 조치가 겹쳐 나타남은 반란에 참여한 이와 참여하지 않은 이를 나누는 분리의 장치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도 여겨지지만,⁶³⁾ ‘고구려 사람’을 신라의 관위 체계 안에 포용하려는 조치를 통해 ‘고구려 잔적’이 반란을 주동했다고 하여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메아리를 잠재우려 한 완충 장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⁶⁴⁾ 그렇지만 이 해에 ‘보덕성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편성하면서 그 군대의 내부에서 위계를 설정함은 하나의 필수적인 조치였을 것임⁶⁵⁾ 고려할 때, 역시 그 가운데서도 ‘보덕성 백성’으로 이루어진 부대의 편성과 연계된, 포용이라는 의미에 주목함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⁶⁶⁾

그러나 그와 같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료 조직 내에 포용할 수 없었던 ‘보덕성 백성’에 대한 대우에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서려 있었을 것임을 서당 부대의 깃 색을 통해 엿볼 수 있다. 683년 창설된 ‘고구려 백성’으로 이루어진 황금서당의 깃 색은 황색·적색이고, ‘말갈국 백성’으로 이루어진 흑금서당의 깃 색은 흑색·적색이다. 곧 두 부대에서 부대명과 직결되는 ‘고구려’와 ‘말갈’의 표지색은 각각 부대명에도 쓰인 황색·흑색이고 그 보조색으로 적색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686년 창설된 ‘보덕성 백성’으로 이루어진 두 부대, 벽금서당의 깃 색은 벽색·황색이고 적금서당의 깃 색은 적색·흑색이다. 이 두 부대 모두 이전의 두 부대의 표지색인 황색·흑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이들

62) 이 때 관위가 수여된 대상을 친신라적 인물로 추측하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한준수, 2018, 『신라 통일기 三武曠의 설치와 麗濟 유민』, 『한국고대사탐구』 3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73쪽.

63) 정선여, 2010, 앞의 논문, 93쪽에서는 이때 관등을 받은 고구려 유이민은 안승과 함께 신라 왕경으로 이주한 이들이 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고, 최희준, 2020, 앞의 논문, 94쪽에서는 666년 연정토를 따라 신라에 귀부했던 이들을 이에 더하여 보았다.

64)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7쪽에서는 ‘고구려민’과 ‘보덕성민’의 구별을 뚜렷이 언급하면서도, 686년 관등 수여 당시 과거의 반란 이력에 대한 사면과 군관(軍官) 임용에 따른 관등 체계 편입 등의 조치가 있었을 것이며 오히려 이쪽에 주안점이 두어졌을 것이라고 보았다.

65)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7쪽 참고.

66)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7쪽에서는 안승 등 왕경으로 이주했던 ‘고구려민’에 대한 포섭 및 신라 관등 체계로의 편입은 683년에 이미 선결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686년에도 여전히 673년의 조치와 같이 ‘경관(京官)’을 언급하며 ‘고구려 사람’에 대해 관위를 수여하였음을 전하는 기사의 내용을 생각할 때 683년 무렵에 그 조치에 대해 참고할 만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을 다소 망설이게 된다. 그보다는 ‘보덕국’의 옛 관인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686년에 일괄적으로 관위가 수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한다.

과 연속적인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적금서당은 흑금서당이 사용한 깃 색 2종을 그대로 계승한 반면 벽금서당은 깃 색으로서 유례가 없는 벽색을 사용하였다.

곧 보덕성의 반란 이후 ‘보덕성 백성’으로 이루어진 부대라고 하여 창설된 부대가 둘로 나뉘어 있으며, 이 둘의 깃 색 사이에 차이가 두어져 있었다. 그 두 부대는 각각 다른 인적 집단으로 구성된 두 서당 부대, ‘고구려 백성’으로 된 황금서당의 표지색 황색과 ‘말갈국 백성’으로 된 흑금서당의 표지색 흑색을 각각 보조색으로 계승하였다. 두 서당 부대가 모두 ‘적금서당’이 될 수는 없었던 만큼 하나의 부대만이 683년 창설된 두 서당의 보조 깃 색이었던 적색을 표지색으로서 계승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갈국 백성’으로 이루어진 흑금서당의 표지색을 보조색으로 이어받은 쪽이 ‘적금서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반면 ‘고구려 백성’으로 이루어진 황금서당의 표지색을 보조색으로 이어받은 쪽은 이전까지의 서당 부대를 비롯한 신라군 내에서 일절 쓰이지 않은 벽색의 깃 색을 사용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러한 구분과 깃 색의 계승 관계는 ‘보덕성 백성’의 고구려의 후계로서의 성격을 가리기 위한 노력은 아니었을까. 곧 특히 전장에 나섰던 이들을 중심으로 ‘고구려 잔적’에 대한 적대감이 고양된 상태에서, 황색의 깃 색을 이어받은 새로운 부대가 황금서당의 ‘고구려 백성’으로서의 성격을 이어받았음을 드러낸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고구려 백성’과 ‘말갈국 백성’으로 된 황금서당과 흑금서당 두 부대가 공통적으로 계승하던 보조색인 적색은 황금서당이 아닌 흑금서당의 표지색을 보조색으로 계승하여, 결과적으로 ‘말갈국 백성’으로 된 부대의 특징을 이어받은 적금서당으로 배당된 것이 아닐까.

다른 한편 벽금서당의 표지색인 벽색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벽(碧)’자를 풀이하며 “돌로서 청색으로 아름다운 것[石之靑美者]”이라고 하였듯⁶⁷⁾ 청색 계통의 색채를 나타낸다. 이 청색은 특히 서당 부대의 질서 내에서 ‘백제 백성’을 구성원으로 하여 672년 창설된 백금서당의 보조색으로 쓰였으며, ‘보덕성 백성’으로 된 두 부대가 창설된 직후인 687년 창설된, ‘백제의 잔민(殘民)’으로 구성되었다는 청금서당의 표지색으로도 쓰였다. 곧 황금서당의 표지색을 보조색으로 계승한 부대에 대해서 ‘백제 백성’으로 구성된 부대와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되 별도의 어휘로 구분되는 색채를 채용함으로써 ‘고구려

67) 『설문해자(說文解字)』 권 1, 옥부(玉部), 벽(碧).

백성’의 부대로서도, 또 ‘백제 백성’의 부대로서도 그 색채를 희석한 것으로, 백제의 옛 땅에 고구려 유민 세력을 결집시켜 만들어졌다는 요소로 인해 필연적으로 혼성적 성격을 띠었을 ‘보덕성 백성’을⁶⁸⁾ 표지하는 데 의미를 갖는 색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눈에 띄는 것이 청금서당의 구성원을 설명할 때 쓰인 ‘백제의 잔민(殘民)’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물론 ‘잔적’과 같이 공격성을 지닌 표현은 아닌 듯 보이지만,⁶⁹⁾ 이전의 맥락 없이 ‘잔(殘)’이라는 표현이 쓰임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672년의 백금서당과 대비시켜 이전에 백금서당 및 675년의 백금무당(白衿武幢) 등으로 편제되었던 백제 유민과 성격을 달리하는 이들로 보는 전제 아래 많은 설이 제시되어 있지만,⁷⁰⁾ 기실 실제 전투로서는 676년 11월,⁷¹⁾ 당 고종(高宗)이 전쟁의 재개를 포기한 시점을 고려하면 678년 무렵에⁷²⁾ 이미 그 종언이 다가왔다고 여겨지는 신라-당 전쟁으로부터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백금서당과 대비시켜 청금서당의 구성원을 ‘잔민’으로 표현했다고 봄에는 다소의 어색함을 느낀다.

그보다는 이 ‘잔민’이란 고구려 유민과 혼성적으로 편제되었던, ‘보덕성 백성’으로 구성되었다는 직전의 백금서당과 대비시킨 표현이 아닐까. 곧 686년 시점에 백금서당을 편성하면서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이 혼화되었음을 벽색

68) 보덕성의 반란에 대해 백제 유민들이 연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정선여, 2010, 앞의 논문, 101쪽; 정원주, 2019, 앞의 논문, 79~82쪽. 이 점은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7쪽에서 지적되었지만, 그는 청금서당이 보덕성의 반란에 연루된 백제계 주민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69) 백제 유민을 가리키며 적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으로는, 이미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4년(664) 3월;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10년(670) 7월조에서 ‘백제 잔중(殘衆)’이라는 표현이 쓰였음도 참고할 수 있다.

70) 末松保和, 1954, 앞의 글, 앞의 책, 356~357쪽에서는 670년 신라가 함락한 82성의 백제 유민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고, 盧重國, 1999, 앞의 논문, 196쪽에서는 웅진도독(熊津都督) 부여웅(扶餘隆)의 아래에 있었던 백제 백성이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권창혁, 2024, 앞의 논문, 297쪽에서는 보덕성의 반란에 연루되었던 금마저 등지의 백제계 주민 집단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71) 『삼국사기』 권 7, 신라본기 7, 문무왕 16년(676) 11월조, “沙湿施得領船兵, 與薛仁貴戰於所夫里州 伐伎浦, 敗績.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 斬首四千餘級.”

72) 『자치통감(資治通鑑)』 권 202, 당기(唐紀) 18, 고종(高宗) 의봉(儀鳳) 3년(678) 9월 신유(辛酉)조, “上將發兵討新羅, 侍中張文瓘臥疾在家, 自輿入見, 諫曰, ‘今吐蕃為寇, 方發兵西討. 新羅雖云不順, 未嘗犯邊, 若又東征, 臣恐公私不堪其弊. 上乃止.’” 『구당서(舊唐書)』 권 85, 열전 35, 장문관(張文瓘)에서는 장문관이 의봉(儀鳳) 2년(677) 죽었다고 하였지만, 이 기사의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古畑徹, 1983,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かけての新羅・唐關係 - 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 107, 朝鮮學會, 15~20쪽이 상세히 고증하였다.

과 황색의 깃 색 조합으로 드러냈으므로, ‘백제 잔민’이란 그와도 다른 존재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사용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685년 봄 이전까지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소부리주(所夫里州)와⁷³⁾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무진주(武珍州)⁷⁴⁾ 또는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발라주(發羅州)의⁷⁵⁾ 사이에서 독자적인 주(州)가 확인되지 않던 전북 지역에 완산주(完山州)를 둠에⁷⁶⁾ 이은 조치였다. 그럼으로써 옛 ‘보덕국’과 연계된 지역에 대해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덕국’에 속하지 않던 전북 지역의 옛 백제 백성과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이들의 행정 계통을 정리, 통합하고 독자적인 주(州)로서 다시 분리하는 과정이, 이 ‘잔민’을 설정하고 ‘보덕성 백성’과 나누는 작업과도 조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 가장 우선하여 다루어야 했던 뜨거운 감자는 지역 사회 재편의 계기이자 다양한 문제가 그것을 둘러싸고 엉켜 있던 ‘보덕성 백성’이었고, 그 뒤 ‘남은[殘]’ 화두로서 다루어진 것이 특히 새로이 둔 완산주를 중심으로 다시금 편제한 ‘백제 잔민’이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청금서당과 비교·대조하여 벽금서당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말갈국 백성’으로 이루어진 부대의 성격을 이어받은 부대⁷⁷⁾인 적금서당과 ‘백제 유민과 혼화된 부대’인 벽금서당을 둔 데서 ‘고구려 유민’의 명의를 은근히 감추어져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곧 반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로를 언급하기 어려운 유민들을 신라 군사 체제의 안에 편제하면서는, ‘잔적’으로서 분노의 표적이 된 ‘고구려’의 이름을, ‘보덕성’의 이름과 ‘말갈국’과 ‘백제’의 색채 뒤에 숨겼던 것이다.

그처럼 ‘보덕성 백성’을 편제하는 데 많은 고민이 깃들어 있었음은, 9서당을 보완하는 군호의 하나로 여겨지는 3무당의 편성 시기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곧 3무당으로 통칭되는 백금무당·적금무당(赤衿武幢)·황금무당(黃衿武幢)은⁷⁷⁾ 9서당 가운데 백금서당·적금서당·황금서당과 연계되어 있는 부대로 여겨진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 황금서당은 ‘고구려 백성’으로 683년 편성된 부대였으며, 적금서당은 686년에 편성되면서 683년 ‘말갈국 백성’으로 구성하여 편성되었던 흑금서당의 깃 색을 보조색으로, 보조 색을 깃

73) 『삼국사기』 권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671) 7월 26일조, “置所夫里州, 以阿湌眞王爲都督.”

74) 『삼국사기』 권 7, 신라본기 7, 문무왕 18년(678) 4월조, “阿湌天訓爲武珍州都督.”

75)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신문왕 6년(686) 2월조, “發羅州爲郡, 武珍郡爲州.”

76)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신문왕 5년(685) 봄조, “復置完山州, 以龍元爲摠管.”

77)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 3, 무관 3무당(三武幢), “三武幢. 一曰白衿武幢, 文武王十五年(675)置. 二曰赤衿武幢, 神文王七年(687)置. 三曰黃衿武幢, 九年(689)置.”

〈표 1〉 비신라계 서당·무당 부대 깃 색의 도식적 표현

<div>부대명 깃 색</div> <div>표지색</div> <div>보조색</div>	<div>⑤ 황금서당(683) [고구려 백성]</div> <div></div> <div></div>		<div>(3) 황금무당(689) [미상]</div> <div></div> <div></div>
<div>부대명 깃 색</div> <div>표지색</div> <div>보조색</div>	<div>⑥ 흑금서당(683) [말갈국 백성]</div> <div></div> <div></div>	<div>⑧ 적금서당(686) [보덕성 백성]</div> <div></div> <div></div>	<div>(2) 적금무당(687) [미상]</div> <div></div> <div></div>
<div>부대명 깃 색</div> <div>표지색</div> <div>보조색</div>		<div>⑦ 벽금서당(686) [보덕성 백성]</div> <div></div> <div></div>	
<div>부대명 깃 색</div> <div>표지색</div> <div>보조색</div>	<div>③ 백금서당(672) [백제 백성]</div> <div></div> <div></div>	<div>(1) 백금무당(675) [미상]</div> <div></div> <div></div>	<div>⑨ 청금서당(687) [백제 잔민(殘民)]</div> <div></div> <div></div>

※ ○은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보이는 서당 부대의 순번, ()는 무당 부대의 순번
 ‘?’는 무당 부대의 깃 색을 ‘모금(某衿)’ 표기가 동일한 서당 부대의 깃 색으로부터 추론한 경우
 색채는 상호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임의의 색을 설정한 것이며, 정확한 색채를 지목하는 것은 아님

색으로 이어받았다. 그런데 그 두 부대에 대한 보완 조치로 여겨지는 두 무당은 오히려 689년 황금무당, 687년 적금무당이 두어지는 것으로 설치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고구려 백성’과 ‘말갈국 백성’ 가운데 그들 다수가 신라로 유입된 사실이 더욱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은 전자일 것이다. 666년 12월 연정토(淵淨土)가 763호(戶)·3543구(口)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해 왔고,⁷⁸⁾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668년 11월 5일 문무왕은 고구려 사람 7000명을 잡아 수도로 돌아왔다.⁷⁹⁾ 또 669년 2월 안승(安勝)이 4000여 호(戶)의 인원을 끌고 신라에 투항하

78)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6년(666) 12월조, “高句麗貴臣淵淨土, 以城十二戶七百六十三·口三千五百四十三來投. …”

79)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8년(668) 11월 5일조,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였으며,⁸⁰⁾ 670년 고연무(高延武)는 정예병 1만 명을 이끌고 군사 작전을 벌였다.⁸¹⁾ 애초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였다는⁸²⁾ 점에서도, 둘 가운데 구심점이 더 뚜렷하였던 쪽은 ‘고구려 백성’ 쪽임을 굳이 의심할 여지는 없을 듯하다. 그 점을 생각할 때 ‘고구려 백성’과 ‘말갈국 백성’ 가운데 황금서당과 흑금서당 등의 편제 이후에도 많은 인원이 잔존하여 무당으로 새롭게 편성되기 용이하였을 쪽은 ‘고구려 백성’이었을 것임에도, 황금무당은 적금무당보다 2년 늦은 시점에야, 또 ‘반란 진압의 공로자’였던 황금서당을 뒷받침하는 부대로서 편성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살펴볼 때, 689년이라는 시점은 신문왕 대의 주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두 사건이 얹힌 해이다. 다시 말해 녹읍(祿邑)이 폐지되고⁸³⁾ 달구벌(達句伐) 천도 시도가 무산된⁸⁴⁾ 해로 기록된 연도인 동시에, 신촌(新村)에서 대대적인 연회(飮)를 벌인 것으로⁸⁵⁾ 기록된 해이기도 하다. 녹읍의 폐지에 2년 앞서 관료전(官僚田)이 지급된 것이나,⁸⁶⁾ 천도 계획이 686년 무렵 이미 구상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를 참고할 때,⁸⁷⁾ 689년은 계속되던 정치적 변화의 흐름이 중대한 화두를 만나 격류에 휩싸인 시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처음 시작된 시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황금무당을 둔 일은, 다른 중대한 사건에 의해 화제성을 피해갈 수 있던 와중에 ‘고구려 백성’으로 구성된 부대를 보강한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볼 때 보덕성의 반란 이후 4년 남짓~5년에 걸친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고구려 유민의 반란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고 ‘고구려’의 명의를 다시금 체제의 내부에 포용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지속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결국 ‘참전용사’로서 전쟁에서의 공로와 국가를 위한 희생⁸⁸⁾ 강조하여야 했던 주체의 시각과, 반란을 평정한 이후 다시 보덕성의 반란 세력을 국가의

80)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寶藏王) 하, 총장(總章) 2년(669) 2월조, “王之庶子安勝, 率四千餘戶, 投新羅.”

81)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상, 10년 3월, “沙滄薛烏儒, 與高句麗太대兄高延武, 各率精兵一萬, 度鴨渌江至屋骨.”

82)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상, 10년 7월조.

83)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신문왕 9년 정월조.

84)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신문왕 9년 윤 9월 26일조.

85) 『삼국사기』 권 32, 잡지 1, 악(樂), “但古記云, ‘政明王九年(689), 幸新村, 設飮奏樂. ...’”

86)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신문왕 7년 5월조.

87) 이영호, 2014, 『신라의 달구벌 천도』,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399~405쪽 참고.

88) 강종훈, 2011, 앞의 글, 앞의 책, 228~229쪽 참고.

일원으로서 포용하여야 했던 주체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그들이 그것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설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했던 ‘보덕성’에 대한 시각 또한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한 쪽에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가족이었던, 친척이었던, 또 전우였던 이를 앗아간 ‘고구려 잔적’이었고, 한 쪽에게 그들은 그림에도 이제 다시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할 ‘보덕성 백성’이었다. 『삼국사기』 김영윤열전과 꺾실열전,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 9서당조에 투영된 서로 다른 시각들은, 그러한 시선들이 교차하던 시대 속에서 엇갈려 나갔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4. 맺음말

‘언어 장벽’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통상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벽’이 쌓이는 사례가 드문가 하면 그 또한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 글은 그러한 ‘장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고대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헌 자료에서의 사례로서 보덕성 반란을 둘러싸고 기술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것처럼 언어와 언어의 사이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장벽’들 사이에서 각각의 주체가 형성하였던 장(場)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글의 2장에서 필자는 우선 시간에 의해 쌓인 언어의 ‘장벽’을 확인하고, 다시 그 두 층위가 뒤섞여 하나의 기사로 합쳐진 『삼국사기』 신문 왕본기 4년 11월조가 갖던 본래의 다층적 구성을 재확인하려 노력하였다. ‘금마저’와 ‘금마군’이라는 두 언어는, 경덕왕 대의 지명 개정을 전후로 하여 각각의 장(場)에 자리하였다. 그 두 장(場) 가운데 한 쪽은 당대의 치열한 전황과 조금 더 가까이 있었고, 한 쪽은 그 순간을 과거로서 기억하되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된 변화와 그것을 교훈 삼으려는 계고의 의미를 재이설의 형태로 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론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고구려 잔적’과 ‘보덕성 백성’이라는 언어 사이에 쌓여 있는 ‘장벽’을 살펴보고 그것을 사이에 둔 각각의 장(場)이 어떠한 기반 위에서 서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하였다. ‘고구려 잔적’은 전장에서 생을 다한 두 인물, 김영윤과 꺾실의 가족, 친척 또는 측근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보덕성의 반란 세력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담게 되었다. 반면 ‘보덕성

백성'은, 그것이 보덕성의 반란이라는 사건을 결국 신라라는 국가 체제 내에서 일어난 '소란'으로 한정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반란 이후 이제 다시 그들을 '백성'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신라 조정의 입장에서 그들을 다시 국가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시선 아래에 놓여 있는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고구려 잔적'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처럼 보덕성의 반란에 대해 붓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이 위치한 시간에 따라, 또 주체의 아래에 쌓여 있는 기초에 따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에 서서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내어놓은 개개의 언어는 각각의 주체가 사건을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내비쳐 보이며, 『삼국사기』에 보이는 보덕성에서의 반란이라는 사건에 대한 기술은 그것들이 교차하는 십자선 위, 나생문의 현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게 되는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5. 07. 01 / 심사개시일: 2025. 07. 30 / 게재확정일: 2025. 08. 21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삼국사기(三國史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삼국지(三國志)』 『자치통감(資治通鑑)』 『논어(論語)』 『강희자전(康熙字典)』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 보유(補遺)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4,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 고구려·백제·낙랑 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 저서

강종훈, 2011, 『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신편 한국사 7: 고대의 정치와 사회 III-신라·가야』.
都守熙, 1999, 『한국지명연구』, 이회문화사.
박명호, 2016, 『7세기 신라 정치사의 이해』, 경인문화사.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李康來, 2007,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編,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古代篇·高麗時代篇-』.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연구』, 한나래.
전덕재, 2021,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鄭寅普, 1983, 『蒼院 鄭寅普全集 3 朝鮮史研究 上』, 延世大學校 出版部.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村上四男, 1978,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3. 논문

- 권창혁, 2024, 「신라의 報德國 경략과 一統 이념」, 『중원문화연구』 3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67-307쪽.
- 都守熙, 1974, 「『金馬渚』에 대하여」, 『百濟學報』 5, 百濟學會.
- 梁炳龍, 1997,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 『史叢』 46.
- 盧重國, 1999, 「신라 통일기 九誓幢의 성립과 그 성격」, 『韓國史論』 41·4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61-203쪽.
- 서영교, 2009,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혜성」, 『인문학연구』 78,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25-254쪽.
- 신은이, 2024a, 「신라 신문왕대의 對唐外交와 一統三韓 표방」, 『新羅文化』 6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39-362쪽.
- 신은이, 2024b, 「新羅의 大官寺 조영과 그 목적」, 『대구사학』 154, 대구사학회, 1-40쪽.
-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2023, 「670년대 신라와 당의 대립과 소통-薛仁貴·文武王書狀의 분석을 중심으로-」, 『嶺南學』 8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97-114쪽.
- 이미경, 2015, 「新羅 報德國의 지배정책」, 『大丘史學』 120, 大丘史學會, 101-131쪽.
- 조법중, 2015, 「고구려유민의 백제 金馬渚 배치와 報德國」, 『韓國古代史研究』 78, 韓國古代史學會, 97-138쪽.
- 정덕기, 2023, 「신라 진평왕대 楸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北岳史學會, 151-198쪽.
- 정선여, 2010,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 56, 湖西史學會, 71-106쪽.
- 정선여, 2013, 「신라 신문왕대 보덕국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湖西史學會, 35-68쪽.
- 정원주, 2019, 「안승(安勝)의 향방(向方)과 고구려 부흥운동」, 『軍史』 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9-92쪽.
- 최희준, 2020,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新羅史學報』 50, 新羅史學會, 79-103쪽.
- 한준수, 2018, 「신라 통일기 三武幢의 설치와 麗濟 유민」, 『한국고대사탐구』 3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51-184쪽.

古畑徹, 1983,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かけての新羅・唐關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 107, 朝鮮學會.

4. 기타

申采浩, 「朝鮮史 (20)」, 『조선일보(朝鮮日報)』, 1931.7.4., 4면.

<Abstract>

Analysis of the Views on the Bodeokseng Keep(報德城) Rebellion

Focusing on the Differences of the Expressions Used in the Texts

Yun, Taeyang*

There are three records on the Bodeokseong keep(報德城) rebellion, which occurred in November 684, in *Samguksagi*(三國史記): An article about November 684 in the Annal of King Shinmun of Silla(神文王本紀), The Biography of Kim Yeongyun(金令胤列傳) and that of Pipsil(逼實列傳). Moreover, articles on Nine Seodangs(九誓幢, The Nine Vowed Military Forces) in the Military Officers(武官) sub-section of The Treatise of the Public Officers section(職官志) include the contents about Jeokgeumseodang(赤衿誓幢) and Byeokgeumseodang(碧衿誓幢), founded in 686, which has been guessed as a stabilization policy after the rebellion.

I, first, noticed the article in the Annal of King Shinmun. In its content, Daemun(大文) and Silbok(悉伏) were confused; Two types of the expression to describe the same district, Geummajeo(金馬渚) and Geumma County(金馬郡), coexist in one article. Given that, I guessed that this article was a mixture of the two materials: One especially paid attention to the progress of the rebel, which is more likely to be written in the near time of the rebel; The other was relatively indifferent to the progress of the rebel and focused on the system transi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connoting the preference on the prophetic view considering the preceding article about meteor shower in the October 684.

In sequence, I focused on the word, ‘The Remaining Savages of Goguryeo(高句麗殘賊),’ which commonly appears in the above-mentioned two Biographies. This phrase shows the frank emotions, in the form of hostility, of the close people and the purpose of raising the reputation of two people by them. This expression, however, shows the contrast with the stance of articles on the Nine Seodangs. These texts use the word ‘People of the Bodeokseong keep(報德城民).’ Concerning the articles on the actions taken by the court of Silla from 686 to 689, I interpreted that the phrase was used to soothe the intensified mentality,

* Fixed-term Work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Heritage

especially by ‘the war veterans,’ as embracing the remaining people of the Bodeokseong.

Consequently, I consider that the various expressions on the one event - the Bodeokguk keep rebellion show how the human languages define the historical incident in their own way. It would give us a meaningful hint to understand the concept: the history written by humans.

Key Words : Bodeokseong Keep(報德城), The Annal of King Shinmun of Silla(神文王本紀), The Biography of Kim Yeongyun(金令胤列傳), The Biography of Pipsil(逼實列傳), Nine Seodangs(九誓幢, The Nine Vowed Military Forces)

